

아동과 노인 간의 관계 향상을 위한 세대통합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 세대간 상호작용활동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ntergenerational Program for Relationships Improvement between Children and the Elderly - on the Intergenerational Activities -

박경란* · 전예화 · 김희년 · 오찬옥
인제대학교 가족소비자학과

Park Kyung Rhan · Ye Hwa Jun · Hee Nyun Kim · Chan Ohk Oh
Dept. of Family & Consumer Sciences · Early Child Education · Socal Welfare · School of Design,
The Institute of Welfare of Human & Environment, Inje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intergenerational program affected the children's perceptions on the elderly and aging.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how the children evaluated the program. The study methods was one group pretest-posttest design. The subjects were 30 elementary school children from 1st to 3rd grade. The intergenerational program was composed of 6 activities: recreation activity for rapport, making a kite, gardening, learning old customs, education of traditional manner, and making rice-cakes. It was executed for two weeks. Data for children's perceptions on the elderly and aging were collected by the interview using questionnaire at pretest-posttest. The results of the qualitative data analysis showed that the children's perception on the elderly and aging changed more positively after the program.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re- and post-test on the children's perceptions of aging and intellectual aspects of the elderly. Most of the children evaluated the program very positively.

Key words : intergenerational program, relationships, children, the elderly

I. 연구의 목적

세대통합 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은 1980년대 이래로 외국 노년사회학 분야뿐만 아니라 아동학 분야에서 점차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주제이다. 이것은 “두 세대간의 협력, 상호작용 및 교환을 증가시키는 활동 또는 프로그램”으로 정의되며(Ventura-Merkel & Lidoff, 1983; Manheimer, 1997 재인용), 각 세대들은 비록 그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경험이 다르다 해도, 전체 생애의 일부분으로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가

정에서 출발한다(한정란, 2001). 이러한 프로그램은 노인 세대와 젊은이 세대간에 기술, 지식, 또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접촉을 통해 양 세대간의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관계향상을 도모한다는 명백한 목표를 갖는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회적·시대적 요인을 고려할 때 세대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첫째,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 및 이에 따른 노인 부양 부담문제이다. 즉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다가오는 2019년에는 고령

* 본 논문은 2003년도 인제대학교 부설연구소 연구비 지원에 의함.

Corresponding author : Park, Kyung Rhan
Tel : 055) 320-3242 Fax : 055) 321-9550
E-mail : homerhan@inje.ac.kr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최성재·장인협, 2003). 이와 같이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로 향하고 있지만 자녀의 전통적인 노부모 부양의식은 약화되어가고 있는 반면 노인들의 자녀독립 의식은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노인의 부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당면과제인데, 세대통합 참여는 이를 위한 한 해결방법이 될 것으로 간주된다.

둘째, 오늘날의 세대분리 현상이다.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세대간의 고립은 더욱 촉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3세대 이상의 가구에 거주하는 고령자의 수는 크게 줄어든 반면, '고령부부'로 구성되는 1세대 가구나 혼자 사는 노인은 급증하고 있어 2000년 현재 노인 단독가구는 44.9%에 이른다(통계청, 2001). 따라서 가족 내에서 조차 노인을 접촉하고 경험할 기회가 점차 어렵게 되어가고 있는데,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연령분리는 젊은 세대의 사회적 지지망의 범위와 질을 감소시키고, 노화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및 부정확한 정보를 증가시키며, 노화를 삶의 자연적인 과정으로 보는 인식을 감소시키는 등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였다(Kaplan, 1993). 이러한 측면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노화 및 노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한 한 주요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한정란, 2001).

셋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현상을 들 수 있다. 오늘날 남녀평등의식과 여성평등고용정책의 강화로 기혼여성들의 취업율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은 여전히 자녀양육의 부담으로 인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지어 일부 기혼여성들은 직장포기를 고려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녀양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부모"상으로서의 노인의 역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측면에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고찰하고자 한다. 학자들에 의하면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와 고정관념은 상당히 일찍 발달하며(Fruit, et al., 1990; Dellmann-Jenkins, 1997 재인용), 대체로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경향(Seefeldt, et al., 1990)이라고 한다. 또한 자신의 조부모에게 애정을 느끼는 아동들도 일반노인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이며, 노화 과정에 대하여도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Galper, et al., 1981). 생의 초기에 형성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일생을 통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므로(Klausemeier & Ripple, 1971) 아동들로 하여금 노인과 늙는 과정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은 발달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이은해, 1981). 따라서 세대통합으로의 모색은 아동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세대간 연구들(신귀연, 1995; 이미정, 1996; 최혜영, 2002)은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가에만 초점을 두었을 뿐, 노인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망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노인간의 상호작용 활동이 아동의 노인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아동의 노인 인식에 변화를 초래하는가? 둘째, 세대통합 프로그램은 아동의 노화 인식에 변화를 초래하는가? 셋째, 아동들은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연구과제는 아동과 노인 개인은 물론 그 가족 및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II. 관련문헌의 고찰

1. 아동의 노인 및 노화 인식

아동들이 노인 및 노화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한 관련문헌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Rich 등(1984)은 3세 정도의 아동들조차 노인을 피곤한, 지저분한, 무력한 존재로 서술하며, 그 결과 노인이 싫어지고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겁낸다고 하였다. McTavish(1971) 역시 아동들은 늙는다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잘못 인식하기 때문에 늙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였다. Rodeheaver(1990)도 노인에 대한 태도는 8세 경에 형성되며 이 연령에서 형성되는 고정관념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들은 학교에 들어갈 때쯤 이미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발달시키고 노인에 대하여 편견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젊은이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노인을 평가해본 연구에서도 아동들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Seefeldt 등(1977)의 연구에서 초등학교의 60%는 젊은이를 가장 선호한 반면, 노인을 가장 선호한 아동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동의 그림을 분석한 Falchikov(1990)의 연구에서도 아동들은 젊은이에 대한 그림에서보다 노인에 대한 그림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더 많이 포함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4세, 6세, 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Isaacs와 Bearison(1986)의 연구에서는 아동들에게 30~50대의 중년과 70~80대의 노인 사진을 보여주고 어느 사

전의 사람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대우를 받는가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6세와 8세의 아동들이 노인을 차별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특히 8세 아동의 노인 차별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해(1981) 역시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젊은 사람에 대한 태도보다 약간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 일부 연구자들은 아동들이 노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지만, 노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rks 등(1985)은 'Children's Views on Aging(CVoA)' 척도를 사용하여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를 고찰한 결과, 노화과정에 대한 아동의 태도는 부정적이었지만, 노인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Newman 등(1997)의 연구에서도 지지되었는데, 아동들에게 노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를 질문하였을 때 아동들은 '재미있고 좋다'라는 응답에서부터 '무서운' '이상한' '외로운'에 이르기까지 반응이 다양하였으며, 아동들은 노인들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 자신이 늙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진술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동들은 자신의 노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해서는 일부 부정적인 지각을 갖지만 이러한 지각이 노인에 대한 느낌으로 전환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아동들의 노인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5세~11세 아동을 조사한 이은해(1981)의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는 정의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느낌과 신체적 측면에서의 부정적인 느낌이 혼합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늙음' 자체에 대해서는 '싫다', '나쁘다'로 지각하였다. 더 나아가 이은해와 Seefeldt(1989)는 한국 아동,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아동, 그리고 미국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였는데, 미국 아동이 가장 노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자신의 노화과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반응하였다. 이미정(1996)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노인에 대해 '느리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조용하다' '둔하다' '한가하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더 높은 경향이었다. 반면 만 5세 아동과 초등학교 2학년,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미실(1996)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노인인식이 비교적 긍정적인 편이었고, 조부모와의 동거 경험 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최혜영(2002)은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노인의 이미지, 신체적 특징, 지적 특징,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의 다섯 측면을 조사한 결과, 아동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 영역은 가족관계 측면이었고,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한 영역은 신체적 측면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임재택 등(1996)은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실시한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조사 결과, '머리가 회다'(24%), '주름이 많다'(23%), '친절하다'(21%), '나이가 많다'(19%), '도움을 준다'(11%), '아는 것이 많다'(10%)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노인을 보는 관점은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학령 전 아동은 노인을 판단할 때 노인들이 지팡이를 사용하고, 주름이 있으며 머리가 하얗다는 등의 신체적인 특성과 행동적 특성으로 평가하는 경향이다 (Edwards & Patricia, 1986). 5세 아동 320명을 조사한 Liversley와 Bromley(1973; Phenice, 1981 재인용)은 7~8세 사이에 사람에 대한 지각의 인지적 분화가 가장 크게 일어난다고 밝혔다. 즉 어린 아동들은 기본적으로 노인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데 신체(예: 주름, 백발 등)와 행동(예: 느리다)상의 외형적 단서를 사용하는 반면, 보다 큰 아동들은 기능적인 면에서(노인들은 나와 함께 놀지 않는다) 노인을 인지한다고 하였다(Kahana & Kahana, 1970). 이와 같이 대체로 7세 이하의 학령 전 아동들은 그들의 인지 수준에서 외모 등의 외적 모습이나 명백한 특성을 사용하여 노인을 판단하고 있다.

2. 세대통합 프로그램

세대공동체 경험을 통해서 모든 세대들은 첫째, 세대상호간에 존재하는 오해와 편견을 줄일 수 있으며 둘째,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기회를 가지며 셋째, 세대 공동의 가치나 관점에 대한 이해를 더욱 확대시키며 넷째, 각 세대의 이점과 능력을 통하여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다섯째, 연령에 따른 분리와 차별을 불식시킬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 사회의 문화적 유산과 전통 및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인생시기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으며, 인생의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한정란, 2001).

이에 대한 몇몇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Cherry 등(1985)은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만족시키며, 한 세대의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다른 세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서 양 세대에게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Aday 등(1991a)은 9개월에 걸친 세대공동체 교육을 통해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평가하였다. 즉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노인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한 자신의 노화에 대한 태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이 Aday 등(1991b)의 연구에서는 1년 후의 추적 조사에

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4학년 아동들은 참여하지 않았던 아동들에 비해 노인에 대한 지각이 보다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Laney 등(1999)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노화에 대한 통합 교육(6주 단위)을 실시한 다음 노화교육의 영향을 고찰한 결과 첫째, 아동들은 노화과정과 수명기대에 대해 보다 정확한 개념을 갖게 되었으며 둘째, 노화란 많은 요인에 기초하여 개인에 따라 상이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과정으로 지각하게 되었으며 셋째, 노인들을 행복하고, 적극적이며, 사회에 기여하는 성원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넷째, 젊은이와 노인 간에 유사함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다섯째, 자신의 미래의 노후를 보다 긍정적으로 조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자들은 노화 및 노인에 대한 다학제적 교육은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관련개념을 배울 수 있으며 연령 차별적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Brabazon(1999)의 연구에서는 IWSP(The Intergenerational Work / Study Program)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평가한 결과 세대간의 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학교 퇴학위기에 처해 있는 10대 학생들의 학교 출석률이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Newman 등(1999)의 연구에서도 60명의 아동(8~9세)과 12명의 노인은 서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태도로 상호 작용하였으며, 양 세대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에서도 노인들은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자기관리기술, 학교과제에 대한 흥미, 그리고 친구관계의 향상을 가져왔다고 하였다. 일부 교사들은 아동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확신감과 사회적 기술 및 자기통제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평가하였다.

아동에 대한 노인들의 지도자 역할(mentoring)도 아동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기술과 자아신뢰를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아동들이 노인과의 관계에 어떻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Henkin, et al., 1993). 일본의 기후겐의 이또누끼 보육원에서도 '노인과 아동의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노인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초청해서 아동들과 접촉하게 하고 보육원의 일을 돋게 하고, 특별행사가 있을 때마다 노인들을 참여시킨 결과 아동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재택, 2001 재인용).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선구적인 연구를 실시한 임재택 등(1996)은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시설에서 이를 실험적으로 적용한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으며, 임재택(2001)은 이 프로그램을 다시 수정·보완하여 10개 유치원과 1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노인·아동 상호작용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노인, 아동, 교사 및 학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부분의 아동들은 노인의 각종 역할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노인과의 전통에 대한 학습활동도 재미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아동들은 노인의 능력에 대해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만족도(90%)를 보였으나, 노인이 교사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다소 낮은 66%의 지지를 보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할머니·할아버지와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였으며, 노인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아졌다. 나아가 아동들은 노인과 하루 종일 같이 활동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봉사활동의 주당 참여횟수도 늘어나기를 희망하고, 앞으로 계속적인 노인참여를 희망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세대상호간에 서로 제공할 것이 있으며, 다른 연령의 사람들과 활동하는 것을 배우고, 상대방을 자신의 삶에 활용소로서 지각하는 것을 배우며, 나아가 노화과정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Newman, et al., 1999).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남 김해시 K 사회복지관에 다니는 초등

표 1. 아동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分	빈도	백분율
학 년	1학년	8	26.7
	2학년	10	33.3
	3학년	12	40.0
	계	30	100.0
성 별	남자	17	56.7
	여자	13	43.3
	계	30	100.0
조부모와의 동거상태	조부모동거	1	3.3
	조모동거	2	6.7
	조부동거	1	3.3
	비동거	26	86.7
	계	30	100.0

학교 1학년~3학년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K 사회복지관에 개설된 여름학교 프로그램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 중 본 프로그램에 참여할 아동을 모집하여 32명의 지원자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2명이 사후 검사에 불참하여 최종적으로 30명의 검사 자료가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인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었으며,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노인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分	빈도	백분율
성 별	남자	3	30.0
	여자	7	70.0
	계	10	100.0
동거손주	있다	5	50.0
	없다	5	50.0
	계	10	100.0
연 령	61~65세	4	40.0
	66~70세	2	20.0
	71~75세	4	40.0
	계	10	100.0
학 력	초등졸	2	20.0
	중·고졸	6	60.0
	대학이상	2	20.0
	계	10	100.0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아동의 노인 및 노화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통한 양적 검사방법과 질적 검사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적 검사도구는 기존의 연구도구(정미실, 1996; 최혜영, 2001)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아동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노인의 지적, 사회적, 신체적 특징과 노화 인식에 대한 4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화에 대한 항목은 1 문항, 그 외는 각각 2 문항으로 총 7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에 1점, ‘약간 그렇지 않다’에 2점, ‘모르겠다’에 3점, ‘약간 그렇다’에 4점,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평점되었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점수로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노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이다(Cronbach α = .81).

질적 검사도구는 CATE: The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Jantz, et al., 1977)에서의 개방적인 단어 연상질문법을 참고로 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질적 검사의 첫 번째 질문은 ‘노인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릅니까?’로 노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이며,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릅니까?’로 노화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는 문항이다. 위 질문 문항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자 중 2명이 내용 분석 하였으며 그 일치도를 알아본 결과 96.0%로 채점자간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연구 방법도 설문지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3 문항이 사후 검사에 포함되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단일 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 방법으로 실시되었으며, 진행절차는 사전 교육 실시, 사전 검사 실시, 프로그램 실시, 사후 검사 실시 등의 순서로 이루어 졌는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전교육 실시

본 연구의 참여노인은 K 사회복지관에서 개설된 노인 학교의 노인들로,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원자를 모집하여 선착순으로 9명과 대기자 1명 등 총 10명을 선정하였다. 이를 노인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본 연구의 절차 및 노인의 역할(교사 및 지도자)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각 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아동학 혹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3명이 보조원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는데, 이들에게도 연구의 취지와 절차를 설명하였으며, 연구자들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및 구체적인 활동 절차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였다.

2) 사전 검사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아동의 노인 및 노화 인식에 대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아동학과 가족학을 전공하고 유아교사로서 교육 경력이 있으며, 현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 하였다.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의 사전 검사를 실시하기

표 3. 아동-노인 공유활동 예비조사

순위	구분	빈도	백분율	예
1	오락활동	44	19.5	바둑두기 노래부르기 등
2	도움드리기(아동⇒노인)	42	18.6	어깨 주물러드리기 심부름하기 등
3	나들이하기	31	13.7	외식놀이 등산가기 여행 쇼핑 등
4	운동 및 산책	26	11.5	산책하기 등산하기 배드민턴 치기 등
5	TV시청	23	10.2	TV 같이보기
6	함께 대화하기	19	8.4	이야기나누기 등
7	이야기 해주기	13	5.8	옛날이야기듣기 책읽어주기 등
8	(아동↔노인) 배우기	9	4.0	컴퓨터하기 역사공부하기 요리배우기
9	일상생활 함께 하기	9	4.0	밥먹기 같이 씹기 간식먹기 등
10	식물가꾸기(동물돌보기)	6	2.7	고추밭 메기 밭일하기 등
11	함께 만들기	2	0.9	음식만들기 그림그리기 등
12	교육시키기	1	0.4	예절교육 등
12	봉사활동하기	1	0.4	함께 봉사활동하기 등
계		226	100.1	

주: 아동들이 응답한 내용은 모두 포함시킴.

전에 검사자의 태도, 질문 방법, 실시방법 등의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5명을 대상으로 예비 검사를 실시하여 아동대상 면접 조사의 방법을 충분히 익히게 한 다음 본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바로 이전에 검사자와 아동간 1 대 1의 개별 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간제한은 두지 않았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아동이 말한 그대로 기록되었다.

3)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세대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먼저, 이전에 개발된 프로그램 및 관련 문헌을 고찰하였다. 그 다음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 110명을 대상으로 '노인과 함께 할 수 있으며, 함께 하기를 원하는 활동'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노인의 측면에서 '아동과 함께 할 수 있으며, 함께 하기를 원하는 활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1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한 결과, 운동·산책(18.9%), 식물·동물 돌보기(16.0%), 오락활동(13.5%), 예절·전통문화 교육(13.5%), 함께 만들기(6.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우선 본 연구의 세대간 프로그램의 활동으로 10가지를 선정한 후, 연구자들과 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보조원들이 논의하여 최종적으

로 6가지 활동을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시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세대간 프로그램 활동 내용

회수	내용
1회	친밀감 형성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활동
2회	연 만들기 연날리기
3회	텃밭 가꾸기
4회	옛날에 관한 이야기하기
5회	예절 교육
6회	떡 만들기

본 프로그램의 실시는 2003년 8월 4일에서 8월 16일에 걸쳐 총 6회 실시하였으며, 각 활동에서의 소요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였다. 그리고 노인과 아동간에 상호작용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아동들을 3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은 아동 10~11명, 노인 3명, 프로그램 보조원 1명으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4) 사후 검사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전검사에 참여한 검사자가 사

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는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이 아동의 노인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전-사후 검사에서 나타난 질적·양적 검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아동의 노인 및 노화 인식의 양적 조사는 paired t-test로 분석하였으며,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질적 분석은 내용 분석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간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상의 분석은 SPSS/PC version 10을 이용하여 실행되었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인식을 양적 조사 분석과 질적 조사 분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다.

1. 노인 및 노화 인식에 대한 양적 조사 분석 결과

아동의 노인 및 노화 인식을 노인의 지적, 사회적, 신체적 특징과 노화 등 4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표 5. 노인 및 노화 인식에 대한 양적 조사

구 분	사전 - 사후	M	SD	t값
노 인 인 식	지적 특징	사전 사후	3.43 4.00	0.86 1.09 -3.35**
	사회적 특징	사전 사후	4.40 4.18	0.75 0.85 1.58
	신체적 특징	사전 사후	3.17 3.21	1.90 1.66 -0.23
노화 인식	사전 사후	1.63 2.17	1.03 1.38	-2.48*

* p<.05 ** p<.005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화 인식과 지적 특징의 두 측면에서 사전-사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보면

사전(1.63점), 사후(2.17점) 양 검사에서 모두 아동들은 노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프로그램의 실시 이후에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의미 있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p<.05$). 이러한 양적 결과는 다음의 노화 인식에 대한 질적 조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지적 특징에서는 사전 검사 시 3.43점에서 사후 검사 시 4.00점으로 높아졌는데,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노인의 지적 특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지만, 프로그램 실시 후에 더욱 긍정적으로 향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p<.005$). 그러나 노인의 사회적 특징과 신체적 특징에서는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외모나 신체적 특징으로 노인을 인식하는 관점은 감소시키지만(표 7참조), 이에 대한 평가적 관점은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2. 노인 및 노화 인식에 대한 질적 조사 분석 결과

1) 노인에 대한 인식

우선, '노인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릅니까?'라는 개방적인 질문에 대해 아동들이 반응한 빈도를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이전의 사전 검사에서는 총 95개(평균 3.2개)로 반응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실시한 다음의 사후 검사에서는 총 81개(평균 2.7개)로 나타나 다소 반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노인 인식에 대한 질적 조사: 평가별 분류

구 분	사 전		사 후	예	
	빈도	백분율	빈도		
긍정적	23	24.2	35	43.2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친절하세요
중립적	31	32.6	23	28.4	나이가 많아요 주름이 많아요
부정적	41	43.2	23	28.4	불쌍해요 길을 잃어서 혼매실 것 같아요
계	95	100.0	81	100.0	

주 : 아동들이 응답한 내용은 모두 포함시킴.

아동들의 반응 내용을 평가적 차원에서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 사전 조사 시의 아동들의 반응은 부정적(43.2%)인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표 7. 노인 인식에 대한 질적 조사: 내용별 분류

구 분	사 전		사 후		예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정서적	16	16.8	15	18.5	불상해요 좋아해요 머리가 하얗다 주름이 많아요
신체 및 외모	33	34.7	25	30.9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세요 용감하세요 용돈을 주세요 아빠, 엄마한테 혼나면 알려주세요
행동적	24	25.3	27	33.3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요
역할적	8	8.4	11	13.6	
상황적	14	14.7	3	3.7	
계	95	100.0	81	100.0	

그 다음이 중립적(32.6%)이었고 긍정적(24.2%)인 내용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사후 검사에서는 아동들이 긍정적(43.2%) 반응을 가장 높게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중립적(28.4%) 반응과 부정적(28.4%) 반응을 동일하게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반응 빈도의 사전-사후 변화경향을 살펴보면, 노인에 대한 아동의 긍정적인 반응은 사전 검사 시의 23개에서 사후 검사 시 35개로 증가한 반면, 중립적인 반응은 31개에서 23개로, 부정적인 반응은 41개에서 23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아동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긍정적으로의 변화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의 감소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들의 노인 인식에 대한 반응을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었으며, 정서적, 신체 및 외모, 행동적, 역할적, 상황적 특징의 5가지 측면으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조사를 비교해 보면, 먼저 사전 조사에서 아동들이 노인을 인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한 특성이 신체 및 외모(34.7%)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행동적 특징(25.3%), 정서적 특징(16.8%), 상황적 특징(14.7%), 역할적 특징(8.4%)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사후 조사에서는 행동적 특징(33.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신체 및 외모(30.9%), 정서적 특징(18.5%), 역할적 특징(13.6%), 상황적 특징(3.7%)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반응 빈도의 사전-사후 변화경향을 살펴보면, 아동들은 노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노인을 어떤 특

정 상황 속에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빈도가 14개에서 3개로 많이 줄어들었으며, 또한 큰 변화는 아니라 할지라도 노인을 외모나 신체적 특징에 의거하여 인식해 온 것에서 행동적 또는 역할적 특징으로 인식영역을 다소 확대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Edwards와 Patricia(1986)가 지적한 바와 같이, 본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도 주로 신체적·행동적 특징에서 노인을 판단하였지만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실시는 아동들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2) 노화인식에 대한 질적 조사 분석

'내가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떠오릅니까?'라는 개방적인 질문에 대해 아동들이 반응한 빈도를 살펴보면 사전 검사에서 총 83개(평균 2.8개)였으며, 사후 검사에서 총 77개(평균 2.6개)로 나타나 반응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아동들의 반응 내용을 긍정적, 중립적, 부정적의 3 차원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결과, 사전·사후 모두 아동들은 노화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Marks, et al., 1985; Newman, et al., 1997)에서 아동들은 노화과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반응 빈도의 사전-사후 변화경향을 살펴보면, 긍정적 응답은 10개에서 19개로, 중립적 반응 역시 10개에서 19개로 약 2배씩 각각 증가한 반면, 부정적인

표 8. 노화인식에 대한 질적 조사

구 분	사 전		사 후		예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긍정적	10	12.0	19	24.7	좋을 것 같아요 손자들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수 있어요
중립적	10	12.0	19	24.7	머리가 흰색이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부정적	63	76.0	39	50.6	죽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계	83	100.0	77	100.0	

응답은 63개에서 39개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것은 세대통합 교육을 통해 아동의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는 Aday 등(1991)의 주장을 지지한다.

3.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세대통합 프로그램 과정이 모두 끝난 후 아동들이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알아보았다.

표 9. 아동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평 가	구 分	빈 도	백분율
가장 즐겁고 좋았던 활동	떡 만들기	13	43.3
	연 날리기	9	30.0
	텃밭 가꾸기	3	10.0
	친밀감 형성(레크리에이션)	2	6.7
	옛날이야기	2	6.7
	예절교육	1	3.3
	계	30	100.0
재 참여 의사	그렇다	26	86.7
	모르겠다	3	10.0
	그렇지 않다.	1	3.3
	계	30	100.0
친구권유의사	그렇다	28	93.3
	모르겠다	0	0.0
	그렇지 않다	1	3.3
	무응답	1	3.3
	계	30	100.0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동들은 가장 좋았고 즐거웠던 활동으로 대부분 연날리기(43.3%)와 떡 만들기(30.0%)를 선택하였으며, 반면에 예절 교육(3.3%)과 옛날 이야기(6.7%) 활동을 선택한 아동은 소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노인과 정적·소극적인 활동을 함께 하기보다는 동적·적극적인 활발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아동에게 이와 같은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30명 중 26명의 아동들이 참여하겠다는 응답을 보였으며, 3명의 아동은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하였고, 1명의 아동만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친구에게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28명의 거의 모든 아동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이 본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세대간의 상호작용과 의미 있는 활동의 증가는 상호 편견과 고정관념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양 세대간의 올바른 이해와 관계향상을 도모한다는 전제 하에, 아동-노인간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아동의 노인 및 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 1~3학년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2003년 8월 4일에서 16일 사이에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노인 및 노화 인식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양적·질적 조사내용이 포함된 설문지를 통해 개별면접 조사하고, 프로그램 실시전후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노인 및 노화 인식에 대한 양적 분석에

서, 노화 인식과 지적 특징의 두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여 사전-사후 검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사회적 특징과 신체적 특징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의 노인 및 노화 인식에 대한 질적 분석에서 i) 아동의 반응을 평가별로 분류한 결과, 프로그램 실시 이후 아동의 긍정적인 반응은 증가한 반면, 중립적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은 감소하였다. ii) 아동의 반응을 내용별로 분류한 결과, 정서적·신체 및 외모·행동적·역할적·상황적 특징의 5측면으로 나타났으며, 반응 빈도에 대한 사전-사후 비교 결과 상황적 특징과 외모·신체적 특징에서 빈도수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iii) 노화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이었으나, 사전-사후 비교결과 긍정적 반응과 중립적 반응은 약 2배정도 증가한 반면, 부정적인 반응은 크게 감소하였다.

셋째, 아동의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분석에서, 아동들은 노인들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거나 교육을 받는 정적인 활동보다는 띄 만들기나 연날리기 등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더 선호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 거의 대부분이 세대간 프로그램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통합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이전에 아동들은 노인을 인식하는 단서로서 외모를 포함한 신체적 특징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실시 이후 이러한 측면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많이 줄어들었다. 또한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노인을 인식하는 비율도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노인과의 접촉이나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면 아동들은 자칫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고 노인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아동들이 노인에 대해 보다 정확한 인식과 이해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세대간에 상호작용과 활동을 많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본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아동들은 노인 및 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바뀐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많이 줄어들었다. 본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 및 회수가 비교적 짧았음에도 이러한 효과가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보다 장기적으로 아동과 노인의 활동이 지속된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세대간의 상호 이해와 관계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초등학교 또는 아동 및 노인 관련시설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요망된다.

셋째, 본 프로그램의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방법에 비추어 앞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먼저 아동들은 프로그램 활동가운데 노인-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동적·적극적 활동(with-action)을 선호한 반면, 이야기 듣는 것과 같은 정적·소극적 활동(with-passive)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이러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노인 및 노화인식의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실시된 양적, 질적 조사의 사전-사후 결과는 거의 대부분 일치되고 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이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느낀 경험과 관점의 변화를 면밀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측정·평가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과 노인의 수가 적어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를 지지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나아가 유아·청소년 등 다양한 연령의 젊은 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세대통합프로그램, 관계, 아동, 노인

참 고 문 헌

- 신귀연 (1995).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 (1996),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해 (1981).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5세에서 11세 아동을 대상으로. 연세논총, 8, 357-374.
- 이은해 · Seefeldt, C. R. (1989). 한국 아동과 미국 아동의 노인에 대한 태도.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생활과학논집, 3, 173-179.
- 임재택 (2001). 유아교육기관의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5), 67-101.
- 임재택 · 김윤옥 · 김경호 (1996). 보육시설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개발·적용·평가 및 보급에 관한 연구. 서울: 삼성복지재단. 미간행보고서.
- 정미실 (1996). 아동, 부모, 조부모 특성에 따른 아동의 노인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재 · 장인협 (2003).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최혜영 (2002). 만5세 유아의 노인에 대한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1). 인구주택 총조사.
- 한정관 (2001). 교육노년학. 서울: 학지사.
- Aday, R. H., Sims, C. R., & Evans, E. (1991a).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impact of intergenerational partners.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0, 372-384.
- Aday, R., Rice, C., & Evans, E. (1991b). Intergenerational partners projects: A model linking elementary students with senior volunteers. *The Gerontologist*, 31, 263-266.
- Brabazon, K. (1999). Student improvement in the intergenerational work/study program. *Child & Youth Services*, 20(1/2), 51-61.
- Cherry, D. L., Benest, F. R., Gates, B., White, J. (1985). Intergenerational service programs: Meeting shared needs of young and old. *The Gerontologist*, 25(2), 126-129.
- Dellmann-Jenkins, M. (1997). A senior-centered model of intergenerational programming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6(4), 495-506.
- Edwards, C. P., & Patricia, G. R. (1986). Promoting social and mor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Falchikov, N. (1990). Youthful ideas about old age: An analysis of children's drawing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2), 79-99.
- Galper, A., Jantz, R. K., Seefeldt, C., & Serock, K. (1981). The child's concept of age and a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2, 340-356.
- Henkin, N., Perez-Randa, C., & Rogers, A. (1993). Linking lifetimes: A national intergenerational mentoring initiative-Program development manual. Philadelphia, PA: Center for Intergenerational Learning, Temple University.
- Isaacs, L. W., & Bearison, D. J. (1986).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prejudice against the aged.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3(3), 175-194.
- Jantz, R. K., Seefeldt, C., Serock, K., & Galper, A. (1977).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College Park: University of Maryland.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142 860).
- Kahana, E., & Kahana, B. (1970). Grandparenthoo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ing grandchild. *Developmental Psychology*, 3, 98-105.
- Kaplan, M (1993). Recruiting senior adult volunteers for intergenerational programs: Working to create a "jump on the bandwagon" effect. *Th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2(1), 71-82.
- Klausemeier, J. J., & Ripple, R. (1971). Learning and Human Abilities. New York: Harper & Row.
- Laney, J. D., Wimsatt, T. J., Moseley, P. A., & Laney, J. L. (1999). Children's ideas about aging before and after an integrated unit of instruction. *Educational Gerontology*, 25, 531-547.
- Manheimer, R. J. (1997). Generations learning together.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ork*, 28(1/2), 79-91.
- Marks, R., Newman, S., & Onawola, R. (1985). Latency-aged children's views on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11(2-3), 89-99.
- McTavish, D. G. (1971). Perceptions of old people: A review of research methodologies and findings. *The Gerontologist*, 11(4), 90-101.
- Newman, S., Faux, R., & Larimer, B. (1997). Children's views on Aging: Their attitudes and values. *The Gerontologist*, 37(2), 412-417.
- Newman, S., Morris, G. A., & Streetman, H. (1999). Elder-child interaction analysis: An observation instrument for classrooms involving older adults as mentors, tutors, or resource persons. *Child & Youth Services*, 20(1/2), 129-145.
- Phenice, L. A. (1981). Children's perceptions of elderly persons. Century Twenty One Publishing.
- Rich, P., Myrick, R., & Campbell, C. (1984). Changing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elderly. *Educational Gerontology*, 9, 483-491.
- Rodeheaver, D. (1990). Ageism. In I. A. Parham, L. W. Poon, & I. C. Seigler(Eds.), Access in Ageing Curriculum Content for Education in the Social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 Seefeldt, C., Jantz, R. K., Galper, A., & Serock, K. (1977). Using pictures to explore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17, 506-512.
- Seefeldt, C., Warman, B., Jantz, R. K., & Galper, A. (1990). Young and old together.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2003. 12. 01 접수; 2004. 02. 03 채택)